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셰익스피어  
피터 J.라이트하르트 지음  
김민석 옮김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에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종종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목록은 목록일 뿐, 쉽게 읽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나에게 가깝고도 먼 작품이었다. 읽어보고 싶지만 선뜻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이번 서평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 사실과 진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범위는 “역사극, 비극, 희극”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평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해석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의 표면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독창적이며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심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셰익스피어와 기독교 세계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폭로한다. 내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통해 느낀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이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야망과 허영심과 정욕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분리는 피할 수가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후기 근대(Post-Modern) 철학이 추구하는 상대주의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절대 기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여전히 절대 기준이 존재하며, 옳은 것이 있다면 틀린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책 속의 한 줄

중요한 점은 셰익스피어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p.227